



특집 02

시민이 주인되는 스마트도시 - 서울특별시

박영섭 (서울특별시 정보화기획담당관)

-
- 목 차 »
1. 서 론
 2. 스마트 서울 2015
 3. 스마트 서울시 주요사업
 4. 에필로그
-

1. 서 론

불과 몇 년전만 해도 사람들은 정보화 환경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시대로 변화하고 있음을 말하여 왔다. 그러나 2007년 스마트폰의 등장 이후 수많은 스마트 기기들은 우리의 정보접근 환경을 기존 환경과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바꾸어 놓았으며, 우리는 이러한 스마트 기술 환경을 스마트 시대라 부르기도 한다.

스마트 기술은 엄청난 잠재력으로 개인들이 원하는 바를 손쉽게 파악, 해결하게 하고 일방적인 정보 수요자에서 정보를 만들어 제공하는 공급자의 역할도 가능하게 하는 등 개인의 정보 활용 영역을 크게 확대시켜 주었다. 이런 변화된 환경에 맞게 시민들은 좀더 편리하고 안전한 스마트 환경을 필요로 하고 적극적으로 스마트 도시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이미 이러한 IT 트렌드 변화를 주시해왔으며 이에 맞는 선도적인 스마트 도시로의 발전방안을 고민해 왔다

스마트 도시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는 아직 없다.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스마트 시티”를 검색해 보았더니 “텔레 커뮤니케이션(tele-communication)을 위한 기반시설이 인간의 신경망처럼 도시 구석구석까지 연결되어 있는 도시”로 정의해 놓았다.

그러나 이는 스마트시티의 기능 측면을 언급한 것이고 목적 측면까지 살펴보면 스마트 시티는 행정의 효율성, 반응성, 민주성 등 전자정부가 지향하는 가치를 위해 양방향 정보기술을 사용하는 진정한 의미의 전자정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스마트 도시는 “도시의 지속성장과 도시기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정보기술을 비롯한 다양한 스마트 요소(smart factor)들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도시이면서 기본 구성원인 시민이 행복해 하는 도시”로 정의 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모바일 서비스 이용, 온라인 서비스 수준 등 어떤 측면에서도 인터넷 경쟁력은 세계 최고라고 자부해 왔다. 서울시가 세계 IT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세계 1위 평가를 받아온 점이나 UN이 실시하는 도

시전자정부 분야에서 2003년 이후 세계 1위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점은 이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리라 본다.

서울시는 스마트도시를 만들기 위해 이미 2011년 6월 정보화기본계획인 “스마트서울 2015”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2015년까지 서울을 세계에서 스마트 기술을 가장 잘 활용하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스마트 서울 2015”의 추진단계는 그동안 추진한 정보화사업을 발판으로 스마트기반을 구축하고(2011~2012년), 스마트서비스를 실행하며(2012~2014년), 마지막으로 스마트고도화(2015년)를 시행한다. 이제 스마트환경에 맞는 “스마트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전략인 “스마트 서울 2015”의 주요내용과 이에 따른 사업내용을 간단히 소개해보고자 한다.

2. 스마트 서울 2015

Smart Seoul 2015 추진배경은 스마트폰, 모바일 등 최신 IT트렌드가 스마트 기술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IT 기술변화에 따라 시민들의 기대수준은 점점 높아져 보다 더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제공받기 원하고 서울시는 시민들의 이러한 요구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자리, 복지, 녹색성장 등 도시경쟁력의 핵심영역과 IT기술의 유기적인 융합이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보다 더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스마트 서울 2015”는 새로운 스마트기술을 도시행정에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서울의 도시경쟁력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는 IT 신전략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추진배경을 가지고 서울시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정보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려고 한다.

- 세계에서 스마트 기술을 가장 잘 쓰는 도시
2015년 서울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스마트 기기를 통한 무선인터넷 이용인구가 80%를 넘어서고, 시민의 30% 이상이 스마트TV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이러한 환경변화에 맞춰 공원, 도서관, 거리, 복지·공공시설과 시민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언제든지 와이파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가장 발전된 스마트 이용환경을 구축하고 고령층, 저소득층, 장애인 등 정보소외계층 시민에게 스마트 기기 활용교육을 제공하여 시민의 스마트 기술 활용 역량을 세계 최고로 만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 시민과 소통하는 스마트 행정

스마트 행정환경 변화에 맞춰 시민과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정보공개를 하는 양방향 정보소통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다양한 시민참여를 유도한다. 또한 유익한 정보와 행정서비스를 모바일화 하는 등 시민 맞춤형 모바일 행정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한다.

아울러 모바일을 통한 위치·지도기반의 서비스를 지원·활용하게 하고, 스마트 워크센터 등 스마트 행정 인프라를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미래형 도시 생활 인프라

서울시는 위험에 처한 아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신속하게 도와주는 안전서비스 시스템과, 갑작스런 자연 재해에 대처하기 위한 선제적 경보 시스템 등 스마트 기기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대에 힘을 쏟는다. 이를 위해 통합된 재해 데이터베이스, 공간분석 자료, 위치기반시스템 등 최신 정보기술을 적극 활용하게 된다.

- 창의적인 스마트 경제, 글로벌 문화도시

스마트 앱 전문가를 양성하고 창업을 지원하는 서울형 앱비즈니스 산업을 육성하며, 사회·경제적 가치가 높고 기업이 직접 생산하기 힘든 공공 정보를 제공하는 열린 데이터 광장을 개설·운영하여 서울의 콘텐츠 산업규모를 2배 이상 성장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세계 도시 전자정부협의체(World e-Government Organization of Cities and Local Governments)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글로벌 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간다.

3. 스마트 서울시 주요사업

3.1 세계에서 스마트 기술을 가장 잘 쓰는 도시

3.1.1 공공무선인터넷(WiFi) 무료개방

서울시는 스마트기기와 무선인터넷 이용인구의 폭발적인 증가에 맞춰 2015년까지 공공청사, 민원실, 주민센터 등 서울전역의 공공장소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WiFi를 단계적으로 설치한다.

공공시설에 설치되는 WiFi는 민간 이동통신사의 상용 WiFi와는 달리 서울시가 보유한 자가통신망을 이용해 서울시가 직접 설치하는 행정WiFi로서 무료로 시민에게 제공된다.

또한 민·관의 전략적 협업을 통하여 녹지공원, 상가도로변, 복지·공공시설, 학교주변, 주택가, 주요도로 등 공공지역에 1만개소의 공공WiFi를 설치한다. 서울시와 이동통신 3사가 공동협력 MOU를 맺고 서울면적의 13.5%에 해당되는 지역에 무료 공공 WiFi를 설치하는데, 서울시가 자체 보유한 정보통신 인프라를 이동통신사에 제공하고 이동통신사는 여기에 AP(무선공유기)를 설치하여 시민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하철, 버스, 택시 등 시민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통신사에서 설치한 AP를 공용화·무료화 하도록 적극 유도하여 시민이 언제 어디서든 무료로 무선인터넷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3.1.2 스마트 정보격차 해소

서울시는 시민들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고령층, 저소득층, 장애인 등 정보소외계층을 대상으로 2015년까지 연간 20만명씩 총 100만명에게 스마트기기 활용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경제적·사회적으로 스마트 기기의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스마트 기기 지원사업을 2012년부터 전개하고 있다. 스마트폰, 스마트TV,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등 스마트기기의 교체주기가 빠르다는 점에 착안하여 중고 스마트기기 기부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수집된 중고 스마트기기는 전문업체의 정비를 거쳐 기초생활수급자 등 정보취약계층에게 무료로 제공된다. 스마트기기 수집은 개인과 이동통신업체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특히 이동통신업체에서 새 스마트기기 판매 시 반납받은 중고 스마트기기를 서울시에 기증토록 유도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8월 LG U+와 중고폰 기부 및 개통서비스 지원에 관한 MOU를 체결한바 있고, 현재 기증받은 스마트폰을 보급 중에 있다. 서울시에 기증하는 스마트기기에 대해서는 상태에 따라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여 그 만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3.1.3 u-Seoul Net 구축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미 서울시는 지하철 터널을 활용하여 서울시 본청과 사업소, 산하기관, 자치구 등을 광케이블망으로 연결한 행정 통신망인 e-Seoul Net을 2003년 구축하여

사용해 오고 있다.

하지만 e-Seoul Net은 행정정보 유통을 위한 백오피스 전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CCTV처럼 대용량 데이터가 발생하는 스마트 서비스는 수용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1년 지하철 터널을 이용하여 192km에 달하는 광케이블인 u-Seoul Net을 새롭게 구축하였다. e-Seoul Net이 정보통신망이라면 u-Seoul Net은 교통, CCTV 등 음성, 영상 등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서비스 통신망으로서,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접속하여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통신환경을 제공하게 된다.

u-Seoul Net은 다시 세 개의 sub 통신망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WiFi망으로서 서울시의 공공WiFi와 행정 WiFi를 위해 사용된다. 둘째 CCTV망은 서울시에 구축되어 있는 3만여개 CCTV의 영상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u-서비스망은 서울시 산하기관의 홈페이지를 연결하는 망이다. 기존에는 일반시민이 통신사업자의 망을 통해 서울시 기관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였으나, 이제는 u-Seoul Net을 통해 접속하게 된다. 경제적으로 통신비를 절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안성도 크게 향상되었다.

3.2 시민과 소통하는 스마트 행정

3.2.1 열린시정(open governance) 2.0 추진

공공의 정보를 민간과 공유하는 것은 스마트 도시를 만드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예컨대 버스도착시간이나 도로 소통상태 같은 정보는 이미 공공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들로 이를 민간과 공유하면 모바일 네비게이터 같은 서비스가 민간에서 개발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정보공개는 시민청구에 의한 공개가 주류를 이루었고, 인터넷에 자발적으

로 공개하는 정보는 시민이 알고 싶은 것 보다 공공이 민간에 알리고 싶은 내용이 많았다. 하지만 열린시정 2.0은 기존의 정보공개정책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시민이 알고 싶은 내용을 사전에 인터넷에 알리고, 보완적으로 청구에 의한 정보공개를 시행한다. 또한 기존에는 최종적인 정보만 공개하였으나 앞으로는 정책 수립과정, 사업 진행상황 등 중간과정에서 산출되는 모든 행정정보를 시민과 공유하게 되어 말 그대로 진정한 시민 중심의 정보 소통이 이루어진다.

서울시는 보다 적극적인 행정정보의 공개-공유를 위해 2012년 8월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소통광장 사이트를 개설하여 공개공표 대상 행정정보는 물론 위원회 회의록, 주요회의 영상 등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내부 전자결재 문서도 단계적으로 공개를 추진하고 있으며, 연구보고서, 감사자료, 회의록 등 非 전자결재문서에 대해서도 공개 가능한 프로세스를 마련하여 모든 문서가 공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3.2.2 모바일 서울(m.Seoul)

모바일서울(m.Seoul)은 휴대폰·스마트폰을 통해 시민들에게 교통, 문화행사, 부동산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모바일 전용서비스로, 2012년 9월 현재 총11개 분야 78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모바일 서울은 모바일 웹 기술을 적용한 것으로서 활용도가 높은 각종 교통정보에서부터 현재 내가 위치한 주변지역의 공공기관, 화장실, 병원, 약국 등의 위치까지 알려주는 위치기반서비스(LBS)도 제공된다. 원하는 지역의 단독주택·아파트 등의 매매가 또는 전·월세를 찾아보고, 매일 업데이트되는 채용·알바정보 및 무료 문화행사까지 실시간 조회된다. 서울시에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제안하거나, 특정 정책에 대한 찬반 투

표에도 참여하고, 트위터·페이스북 등 SNS로 자유로운 의견 교환도 가능하다.

또한 누구나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는 집에 착안하여 안전, 민원 등 다양한 분야로 모바일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재난안전앱 「서울안전지킴이」는 집중호우, 태풍, 대설, 대형화재, 교통사고 등 긴급상황을 빨리 알려주고 응급대책서비스까지 제공한다. 모바일민원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전자민원을 처리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3.2.3 스마트워크

서울시는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기술을 이용하여 직원이 집 가까운 곳에 모여서 일할 수 있는 사무실(Smart Work Center)을 현재 10개소 운영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Smart Work가 초기단계이지만 지속적으로 늘어나 2015년까지는 직원의 30%가 근무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2010년 8월 사업 개시 후 2012년 7월말까지 서울시 직원 총 3,015명이 이곳에서 근무하였다.

Smart Work Center에 출근하면 온라인으로 출근시간을 체크하고 서울시 groupware에 접속하여 업무를 시작하며 소속 부서와 회의가 필요할 경우에는 teleconference 시스템을 활용한다.

Smart Work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으로, Smart Work를 체험한 공무원의 79%가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용하겠다는 공무원이 91%를 넘는다.

특히 외국에서도 서울시 Smart Work Center를 방문하여 미래지향적인 근무환경에 큰 관심을 보이기도 하였다.

3.2.4 커뮤니티 맵핑

오늘날의 시정운영은 시민들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다 시민의 참여는 SNS나 홈페이지 또는

120콜센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서울시가 추구하고 있는 시민 참여형 시정운영 ‘Government 2.0’의 실체라고 할 수 있다. 커뮤니티 맵핑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GIS, 모바일, SNS 등을 통해 시민들이 관심 사항에 대해 스스로 정보를 모으고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자발적 활동이다. 커뮤니티 맵핑은 민간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서울시는 민간의 커뮤니티 맵핑이 활성화되면 서울시정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민간의 커뮤니티 맵핑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지도기반의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센터 운영을 지난 8월부터 개시하고 있으며, 현재 여성 편의 시설 및 일자리 주제도 등 여성을 위한 스마트 맵을 제작, 보급하고 있다. 커뮤니티맵핑은 현재 주로 복지와 장애인 관련부서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시민들이 다양한 주제로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들이 시정운영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시정 만족도는 향상될 것이고 시는 낮은 행정비용으로도 시민들의 의사를 빨리 파악하여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효과를 얻게 될 것이다.

3.3 미래형 도시생활 인프라

3.3.1 u-서울안전서비스

서울시는 아동, 장애인, 치매노인 등 안전취약 계층을대상으로 모바일, LBS, CCTV 등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u-서울안전서비스를 2008.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u-서울안전서비스는 서울시에서 개발한 안심전용단말기를 이용하여 평상시에는 현재위치와 이동경로 등을 홈페이지와 휴대폰으로 실시간 안내하고, 비상호출, 안전존 이탈 등 비상시에는 문자알림 서비스와 함께 경찰, 소방, CCTV 관제센터와 실시간 위치정보를 연계

하여 긴급대응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공공의 보편적 안전복지를 위하여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 계층에 대해서는 단말기 비용 및 통신요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이동통신사와 MOU를 체결하여 스마트폰으로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추진 중에 있다.

3.3.2 은평 u-city

은평 u-City 사업은 서울시가 최고의 주거공간 구현을 위해 지난 2006년 10월부터 준비하여 2011년 3월 완료한 사업으로, 4만 5,000여명이 거주하는 총 면적 349만 평방미터 규모의 생활밀착형 유비쿼터스 주거단지 조성사업이다. 이 지역 주민들은 인터넷이나 휴대폰에 접속 없이 거실 벽면에 부착된 스마트 단말기를 통하여 시내 버스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주거지역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지능형 방범CCTV는 "물체 추적기능"을 갖추고 있어 주민들의 안전한 귀가 길을 돕는다.

위치확인 서비스는 단말기를 가진 치매노인이나 장애인이 은평 뉴타운 지역을 벗어나거나 위급상황에서 비상벨을 누르면 보호자에게 자동으로 문자를 보내준다. 첨단복합가로등 서비스는 전력사용량 절감은 물론, 주민들에게 음향방송, 무선인터넷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뉴타운 단지 내에 설치된 미디어 보드는 뉴스정보, 북한산정보, 버스정보 등을 제공한다. u-Green 서비스는 개천 등에 설치된 센서를 통해 수집된 수질정보와 대기질 정보, 아리수 수질정보 등을 미디어보드 및 세대에기에 제공하는 친환경 서비스이다.

서울시는 유비쿼터스 시설물관리, 정보수집, 시스템관리 등 은평 u-City 전체를 통합 관리하는 u-도시통합운영센터를 은평구청 내에 운영하고

있으며, 경찰과 모니터 요원 등이 하루 24시간 365일 비상벨 호출에 대한 대응, 범죄수사를 위한 영상제공, 재난 방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3.3.3 첨단 IT 버스정류장 u-쉘터

2009년 처음 설치된 u-쉘터(u-Shelter)는 첨단 IT 기술을 적용한 미래형 버스 정류장으로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각종 스마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가장 많이 이용되는 버스 노선안내 서비스는 시민이 직접 원하는 버스노선번호를 선택하면 버스위치와 도착 예정시간을 안내해 준다. 버스도착 시간을 미리 예측할 수 있어 간단한 은행업무, 쇼핑 등으로 남은 자투리 시간 활용이 가능하여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다. u-쉘터는 이밖에 화장실 위치, 날씨 등의 서비스도 제공하며, 특히 버스에 기상 및 대기환경 센서를 설치하여 온도, 습도, 풍향 등 기상상태와 대기오염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3.3.4 3차원 공간정보

서울시는 2001년부터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기존 2차원 지도는 지형을 이해하기는 편리하지만, 현실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지 못해 활용도가 제한되는데 비해, 3차원 지도는 높이 데이터가 추가되어 현실과 매우 유사한 공간정보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3차원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2008년 4월부터 생활지리정보, 테마관광정보, 도시계획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생활지리정보는 이용자들이 찾는 장소를 현실감 있게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테마관광정보는 서울의 주요 관광지를 3차원 정보로 구축하여 가상 관광이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이고, 도시계획정보는 3

차원 시뮬레이션 기법을 활용하여 도시계획 정책을 볼 수 있는 서비스이다.

3.4 창의적인 스마트 경제, 글로벌 문화도시

3.4.1 서울형 앱 비즈니스 산업 육성

서울시는 스마트 앱 전문가를 양성하고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형 앱 비즈니스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2011년 기준으로 서울소재의 학교, 직장동호회, 민간기업 등에서 소규모로 운영하는 민간 앱 개발센터는 100여개가 있고 앱 전문 인력은 2천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민간 앱 개발센터와 연계하여 교육 및 창업을 지원하고 민·관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이동통신사, 연구기관, 대학 및 관련 협회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2015년까지 앱 개발 인력 1만여명을 양성하고 1천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상암동 IT 콤플렉스와 성수 IT앵커시설의 「서울 앱 개발센터」를 기반으로 스마트폰, 스마트TV, 태블릿PC 등 스마트 기기용 SW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서울 앱 개발센터」를 통해 2015년까지 앱 개발 및 기획자 등 고급 전문인력을 3천600명을 양성하고 1인 창조기업 600곳을 지원할 계획이다.

- ※ IT 콤플렉스 : 2014년말 준공, 스마트 정보 보안 관련 추진 센터, 세계도시 전자정부협의체 사무국, e-스포츠 경기장, 교통방송 등이 입주하는 첨단 융합형 IT랜드마크
- ※ 성수 IT앵커시설 : IT융합산업, 바이오산업, R&D 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공간

3.4.2 공공정보 개방

정보화 사업의 촉진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공정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공정보가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민간의 다양한 비즈니스 창출기회를 제공하고, IT산업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사회·경제적 가치가 높은 서울시 공공데이터를 무료로 개방하는 열린데이터 광장을 지난 5월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데이터 개방 통합창구인 열린데이터 광장을 통해 유동인구 정보 등 민간이 생산하기 어려운 내부 행정정보를 원문데이터로 개방하고 있으며 민간이 주관하는 공공데이터 활용 캠프도 지원한다. 또한 2014년까지 서울시 전체DB 400여종의 35%이상 공개를 목표로 2011년 20여종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한데 이어, 2012년 60여종, 2013년 100여종, 2014년 150여종을 공개해 나갈 계획이다. 공개 데이터는 엄격한 데이터 품질보장 시스템, 민간 활용을 위한 데이터 가공, 보안관리 등 부가서비스와 병행하여 개방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공공데이터 개방 체계 확대구축을 위한 공공데이터 활용지원센터를 2013년에 운영할 예정이며, 공공데이터 민간활용 서비스 개발 경진대회, 공공데이터 민간개방 중장기 정책방향 제시를 위한 서울 데이터 포럼(가칭) 구성·운영 등 공공데이터 개방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3.4.3 IT서울 세계 리더십 확보

2010년 9월 서울시는 세계도시 전자정부협의체(WeGO, World e-Government Organization of Cities and Local Governments)를 50개 회원도시와 함께 성공적으로 창립하였다. 그리고 서울시는 초대 의장도시로서 전자정부 분야에서 국제협력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세계도시 전자정부 협의체가 성공적으로 발족

됨으로써

- 세계도시간 전자정부의 교류·협력 촉진
- 디지털 역량 강화를 통한 행정능률과 투명성 제고
- 그린 IT 실행방안 마련으로 녹색성장 달성
- 시민 온라인 서비스·시민참여 활성화 도모
- 세계도시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공동 협력과 연대 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협의체 참여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공동번영을 이끌고, 세계 도시시민 삶의 질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세계도시 전자정부 협의체는 전자정부 분야의 대표성 있고 공신력을 갖춘 국제도시간 협력기구로 지속 발전해 나갈 것이다.

4. 에필로그

서울시는 그 동안의 전자정부 성과를 기반으로, 신개념 전자정부를 위한 “스마트 서울 2015”를 추진함으로써 다양하고 수준 높은 시민 수요에 맞춤형으로 대응하는 똑똑한 지능형 도시를 만들어갈 것이며, 더불어 스마트 정보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세계속의 스마트 1위 도시로 자리매김해 갈 것이라 확신한다.

- **시민의 편의와 안전이 지속 업그레이드되는 스마트 도시 서울시!**
- **기술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이 하나되는 글로벌 미래 도시 서울시!**

이를 위한 서울시의 무한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저 자 약 력



박 영 섭

이메일 : ysub@seoul.go.kr

• 서울특별시 정보화기획담당관